

# 전남, 지역사랑상품권 2500억 푼다…할인율 최대 12%

## 도비 50억원 선제 투입

## 연초 골목상권 회복 속도

## 영암·무안군 추가예산도

전남도가 민생경제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도비 50억원을 선제 투입, 총 2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연초 소비 위축을 고려해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회복에 정책 역할을 집중하겠다는 판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발행은 정부 예산과 시군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시 10% 할인율에 도비 2%를 추가해, 연초 한시적으로 최대 12%까지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체감형 할인 혜택을 통해 도민의 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효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선제 발행과 안정적인 할인율 유지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해 왔다. 이번 도비 추가 지원 역시 이 같은 정책 기초의 연장선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연초부터 도비를 신속히 투입해 할인율을 높인 것은 도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이와 소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상품권이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과 무안군 등 일부 시군은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연초에 집중되는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LH 광주선운2 상업·자족시설용지 제공급

## 4필지 최대 15% 가격 인하…14~15일 접수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유병웅)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용지와 자족시설용지 총 4필지 가격을 내려 제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상업용지 2필지는 각각 4400㎡, 4600㎡ 규모로, 공급예정가격은 167억원(3.3㎡당 1266만원)과 168억원(3.3㎡당 1203만원)이다. 이전 공급단가 대비 최대 15% 인하됐다. 매매대금은 유이자 조건으로 3년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다.

자족시설용지 2필지는 각각 3400㎡, 4400㎡ 규모로, 공급예정가격은 63억원(3.3㎡당 612만원)과 73억원(3.3㎡당 545만원)이다.

이전 공급단가 대비 최대 9% 인하된 금액이며, 매매대금은 무이자로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광주선운2지구는 선암동·운수동·소촌동 일원에 39만8000㎡ 규모로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와 일부 녹지구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4년 말 1단계 준공을 완료했으

며, 2단계 구간은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이다. 인근 KTX송정역, 광주공항, 무진대로,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광주지역 내·외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지구 남측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선운회망타운2단지(606세대)와 광주전남 최초의 신혼희망타운(1224세대)은 이미 입주를 완료했으며, 7월 예정된 영무에다움(554세대) 입주가 시작된다.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입찰·추진신청 및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이다.

문의 LH 통합 콜센터(1600-1004) 및 LH 광주전남 판매팀(062-360-3151).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농협, 올해 2000여 농가에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 전년비 2배 ↑…NH투자증권과 비용 70% 지원

농협중앙회가 올해 정부와 협력해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농가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린 2000여 곳으로 확대한다.

5일 농협에 따르면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 하우스와 노지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농협형 모델이다.

시설원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제어형, 양액 제어형, 복합환경제어형과 노지 재배 농가를 위한 관수제어형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생산자 조직과 공급 업체를 연계하고, NH투자증권과 함께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NH투자증권이 60%, 농협경제지주가 10%를 각각 부담한다.

그 결과 지난해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농가는

230여곳에서 1000여곳으로 크게 늘었으며, 농협은 올해 정부와 협력해 설치 규모를 2000여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라며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를 통해 미래 농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새해 첫 현장 경영 일정으로 충남 논산시 강경농협을 찾아 농협 금융과 경제 부문이 협력해 추진 중인 보급형 스마트팜 공급 확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내 스마트팜 농가 운영 현황과 작물 생육 동향을 점검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중기부-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 기술보유기업 130곳 선정…12~23일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기술 공급 기업을 오는 12~23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무인판매기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매장 운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올해 기술 공급 기업을 약 130곳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서 기술 부문 중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을 확대했다. 이 밖에 렌털형 소프트웨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지난 2일 북광주농협 관내 딸기 재배 농가와 로컬푸드판매장 등을 방문해 본격적인 출하철을 맞은 딸기 작황과 출하 상황 등을 살펴보고 농업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 현장경영으로 힘찬 새출발

## 북광주농협 딸기 재배 농가·로컬푸드판매장 등 방문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본부장 취임 후 새해 첫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일 북광주농협 관내 딸기 재배 농가와 로컬푸드판매장 등을 방문해 본격적인 출하철을 맞은 딸기 작황과 출하 상황 등

을 살펴보고 농업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로컬푸드매장과 광주시 농협쌀조합 공동법인 지역 농산물 판매현황과 쌀 가공·유통 시설을 점검했다.

이철호 본부장은 “로컬푸드매장과 생산 농

가, 쌀가공·유통 현장을 차례로 살펴보고, 농업인의 탐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제강했다”며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광주본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붕괴 참사 중단’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첫 삽’

## 착공신고 수리…조합설립 18년만

## 총 2299세대 2029년 완공 목표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로 중단됐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2월24일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이를 수리받아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구 학동 633-3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면적 39~135㎡ 규모의 공동주택 2299세대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099세대, 임대주택은 200세대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1개월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스카이 커뮤니티와 특화 외관, 조경 설계 등을 적용하고, 세대 내 음식물 이송 설비 등 차별화된 설계를 통해 광주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은 2005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이후 2007년 조합 설립 인가, 201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도.

이후 2024년 8월 마지막 건물 철거를 마쳤으며, 2025년 3월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면적과 가구 수 조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이뤄졌다.

조합은 2025년 7월 총회를 열어 최소한의 원자재 및 물가 상승분만 반영한 공사비 최종 제안을 확정했다. 공사비는 3.3㎡당 619만8000원 수준이다.

동구 관계자는 “착공 신고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 이를 수리하고 착공 신고 필증을

발부했다”며 “과거 사고를 교훈 삼아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붕괴돼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고객에 신뢰받는 지역선도은행 도약”

## 농협은행 광주본부, 2026년 책임경영 협약식

NH농협은행 광주본부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고객중심의 지역선도은행’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지난 2일 임철현 본부장을 비롯해 관내 사무소장과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책임경영 협약식’을 열고, 올해 경영 전략의 내재화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목표 공유를 넘어 스고객 신뢰 회복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현장 중심의 효율적 경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질적

인 행동 강령으로 구체화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광주본부의 비전을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함께했다.

임철현 본부장은 “농협은행 출범 14주년을 맞는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삼아야 한다”며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고객이 미소 짓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지난 2일 임철현 본부장을 비롯해 관내 사무소장과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책임경영 협약식’을 열고, 올해 경영 전략의 내재화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